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둥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노년시대

실버NEWS

삶의 지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노년시대.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 실버계층, 마음껏 일하며 보람된 노후를 준비한다,



40년 유교 공부...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싶어

‘사서오경’ 공부 외길 인생 어재동씨(69)

40여년간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 공부를 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어재동씨(69세, 사진)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유교를 가르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죽왕면 삼포리 태생인 그는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서울에 위치한 공군에 입대해 여의도에서 제대를 했다.

제대 후 서울에서 건설관련 직장생활을 해 오던 그는 어릴적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유교사상에 매료돼 29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서오경을 공부했다.

“물질 만능으로 변화의 흐름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정신마저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씨는 가끔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집 앞 텃 밭에 나가 심어놓은 농산물들을

가꾸며 보낸다고 한다.

50대 중반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부에 입학해 4년간 ‘사서’를 공부한 그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학문에 더욱 더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사서’ 공부는 정식으로 마쳤으나, 형편이 어려워 ‘오경’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독학으로 습득했습니다.”

어씨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며 “공부를 많이 하다보면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다.

지난 2008년 11월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에 가족을 두고 이중 생활을 하게 돼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학문의 외길을 걸어온 터라 끝까지 매진하고 싶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들에게 유교사상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내가 태어나고 배운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치인 유교사상을 가르치고 싶은게 꿈입니다.”

어씨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옛 학문을 일깨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명심보감 교육을 통해 잃어가는 민족성을 일깨우고 싶다”고 했다.

어씨는 최근에는 한시와 서예를 배우기 위해 유관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박승근 기자



2011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



지난 15일 고성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열린 2011 노인지도자 연찬회 모습.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지회장 김완식)는 지난 15일 고성문화의집 3층 대강당에서 기관단체장 및 기관관계자,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경동대학교 한성수교수의 리더십 제고를 위한 4대 과제 및 보건의료사업단의 보건의료지원 사업설명 및 건강강좌 등의 초청 강의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 발표회도 열렸다.

박승근 기자

우리마을 경로당 / 현내면 초도 2리

여성의 꼼꼼함으로...남성 8·여성 44명



심상희 회장

92가구에 52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현내면 초도 2리 경로당은 회원 모두가 화목한 가족처럼 운영되고 있다.

초도 2리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는 심상희 회장(사진)은 현내면 지역의 유일한 여성회장이다.

1963년 준공한 초도2리 경로당은 65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남성 8명 여성이 44명이다.



현내면 초도2리 경로당 전경.

초도 2리 경로당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폐품을 모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여성들의 꼼꼼함으로 경로당 주변을 매일 같이 청소하고, 해변 등 관광지 주변 정화 활동도 수시로 펼치고 있다.

주기적으로 기관에서 유익한 노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의 날이면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열어 주고 있다.

심상희 회장은 “우리 경로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들이 혼연 일체가되어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지역 어르신을 공경합시다!

고성신문 지역사랑 캠페인